

‘자원순환형 농촌개발’ 주제를 선정하며



김 대 식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대자연이 인류의 탄생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선사한 위대한 에너지인 화석 에너지는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에 우리 인류는 화석 에너지에 종속된 문명을 전개한 반대급부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상대적 불편함과 경제적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릇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는 편리한 문명이 고도로 축적된 곳이 도시라고 하면, 농촌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문명이 집적된 곳 또는 도시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의 결과로 엔트로피가 고도화된 산물을 흡수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대한 바다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근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전반적인 충격으로 볼 때, 석유 에너지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또한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문화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농촌의 활성화, 농촌의 리모델링을 위한 몇 가지 인자의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농공학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범지구적이고 국가차원의 큰 이슈가 되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일찍이 농촌계획분야는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에너지 순환 또는 자원 순환의 공생관계로 해석한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농촌개발과 정비를 위한 우리 농공학문의 존립의 근

거 그리고 이를 매개로 국가 예산 투입에 대한 우리사회의 허락, 나아가 WTO 등이 제약하는 국가의 농촌에 대한 직접지원 금지 등의 난제를 피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농촌정비와 지원 정책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자원순환형 농촌개발이라는 키워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정답에 근접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농촌은 깨끗하게 정비되어야 하고,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야하며, 엔트로피가 높아진 자원을 재활용 해야할 뿐만 아니라 전래되어오는 전통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자원순환형 농촌개발”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자원활용을 고려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짚어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개발, 토속자원(전통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물의 순환을 고려한 농촌환경관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농촌환경정비, 그리고 바이오매스자원을 활용한 농촌환경개선이라는 소주제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이 향후 농공학분야의 학문적 전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이와 관련된 독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